안동지역 임원단 충주 탄금대 탐방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대종원 정기총회를 마친 안동팀 40여 명이 문소관광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충주시에있는 국가명승 제42호로 지정된 탄금대(彈琴臺)를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면서 한시간 가량 시간을 보냈다.

탄금대는 충주시 서북쪽 칠금동에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류하는 곳에서 남한강 상류쪽으로 1km쯤 뻗은 해발 200m 가량의 대문산(大門山)에 위치해 있어 산세가 평탄하고 송림이 우거져 경치가 좋은 공원으로 가꾸어져 있어서 충주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날 문화관광안내소 장연순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탄금대 공원안에 있는 유적과 우륵선생추모비, 탄금대사연노래비, 숲길, 충혼탑, 충장공 신립장군과 팔천고혼위령탑, 항일 시인 권태응(權泰應)선생의 감자꽃노래비 등을 둘러보았다. 날씨가 무더워 한여름을 방불케 했으나 공원 안 나무 그늘 밑을 지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금세 땀방울이 자취를 감추었고 끝없이 펼쳐진 남한강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특히 탄금대는 남한강 절벽을 따라 휘감아 돌고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열두대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절경임에 틀림이 없다.

△안동지역 임원단 대종원정기총회 후 귀로에 탄금대를 탐방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1986년 8월 공원으로 지정되고 충북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다 2008년 7월 국가명승지 제42호로 승격되었다. 신라 진흥왕 13년(552) 가야국에서 귀화한 우륵(于勒)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여 탄금대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조선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장공 신립(申砬)장군과 8,000여 명의 장병이 탄금대 일대에 배수진을 친 후 북상하는 카토 기요마사(加藤淸正),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에 맞서 싸웠으나 분패하여 자결한 고전장(古戰場)이기도 하다. 신립장군의 충의 심을 기리기 위해 군수 김용은(金容殷)이 건립하고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찬한 탄금대비(彈禁臺碑)가 있다.

탄금대를 한 시간 가량 둘러본 안동 팀은 문소관광버스로 안동에 도착, 안동시 태화동 강변마을길 <촌가칼국수>식당에서 칼국수로 저녁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대종원 정기총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또 무사히 안동에 도착하여 기쁘다"며 "오늘 저녁 값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보도부장 권영건〉

2015년 안동종친회정기총회

안동종친회(회장 권주연)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총회에 권재주 고문, 권영세 안동시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원로회원, 부회장, 상임 및 운영위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영세 시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족친들에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김광림 국회의원은 총회에 참석치못한 대신 축전을 보내왔다. 이날 '메르스'의 영향인지 예년보다 족친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묘소 망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올해는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족친 여러분이 고생이 많다. 특히 안동종친회원들은 안동시 서후면 능골에 많이 참석 할 것을 당부했다. 권재주 고문은 축사를 통해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안동권씨가 앞으로 그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택기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안동을 골

△안동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주연 회장

고루 다녀보니 족친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박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권순협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4년도 결산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권재주 고문은 올 예산 가운데 2층 화장실 설치와 옥상방수 등 건물수선비가 3천 5백만 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임원회의를 거쳐서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 앞으로 임원회의에서 재차 결의하기로 했다. 또 '금년도 안동권씨 복회(伏會)에 관한 건'은 더위와 장소문제로 삼복(三伏)이 지난 후 오는 8월 22일(음력 7월 9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개최 장소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2시간에 걸친 총회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회관 내 1층 <양반밥상>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권순창(농협)씨가 기증한 치약을 선물로 전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청송종친회 제20차 정총 및 회장 이·취임식

청송종친회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30분 영덕군 강구면 하괴리 「청송횟집」에서 족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정총 및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권홍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 행사에 이어 권오영 회장의 인사와 경과, 결산,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권오영 회장의 이임사, 권구오 신임회장 취임사가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면서 족의를 두텁게 하는 가운데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영덕종친회 제59차 정기총회

영덕종친회(회장 권병윤)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괴시2리 종친회관에서 권오철 고문, 오화 前 강구면장 등, 남여 족친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 행사에 이어 권병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공·사가 바쁜 시간에 많이 참석해 준 족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모두 투철한 숭조정신으로 서로 화합, 단합하면서 문사진작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기 국장의 경과, 결산보고와 권위달 감사의 감사보고, 올해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으로 족의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영덕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병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밀양종친회 제62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영하 선출

밀양종친회장 권태경은 5월 24일 부북면 위양리 완재정에서 족친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기준 총무사회로 시조태사공 묘서를 향해 망배가 있었으며, 이어 내빈소개와 함께 권오익 고문의 격려사와 상례인사에 이어 권태경 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종친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종친회에서는 새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새 회장에 권영하가 선출되었으며, 회의를 마치고 준비된 오찬을 즐기며 족친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영하 △감사 : 권기준, 권영근 △사무장 : 권영구 △총무 : 권동문 〈권태경 前 회장〉

마포종친회 야유회

△마포종친회가 야유회 행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지난 5월 31일 남여족친 45명이 관광버스 1대로 경북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 등산과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를 탐방하는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권승구 회장은 차중 인사말과 함께 금오산은 구미시와 낙동강을 품고있는 명산이며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첨단 기계, 기술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금오공업고등학교가 있고 또 선산에 전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으니 오늘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구미에 도착해 금오산 입구 「맥우식당」에서 오찬한 후 일부는 해운사 뒤 대혜폭포를 등산했으며, 일부는 저수지를 돌면서 산책한 후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를 탐방해 관람하고 단체 기념 촬영 후 귀로에 올랐다. 〈권영관〉

• 동정

▲3억모금으로 권대욱(64) 아코르 앰버서더코리아 사장이 지난 15일 각국의 외교관이 지켜보는 뉴욕 유엔본부 무대에서 44명의 합창단원과 함께 '그리운 금강산' 아리랑 등 12곡을 부르며 공연했다.

▲「나성에 가면」 가수 권성희(61)가 지난 3일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25개구청에서 초청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0여명을 모신 가운데 '한마음 축제' 무료공연을 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5일 권문식(61) 현대기아차연구개발본부장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으며, 또한 지난 10일 외교부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공식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박근혜정부의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배우 권율씨가 '제19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槐雲칼럼

장하다 메이저 퀸 박인비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박인비(27)골퍼가 지난 6월 11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주 해리슨 웨스트코스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위민스PGA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우승을 했다.

이번 박인비의 쾌거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침울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주었다. 결승전에서 한국선수 김세영과 마지막조가 되어 우승을 겨누었다. 한국선수 누가 우승해도 좋다는 편안한 생각으로 월요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결승전 TV 생중계를 보았다.

박인비의 기록은 대단하다. 박인비는 첫날 보기 1개를 기록한 뒤 3일간 보기 없이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여 최종합계 이대회 최다 언더파기록인 19언더파 273타로 2위 김세영을 5타 차이로 우승했다. 박인비는 1988년 7월 12일생으로 14살 때에 2002년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천재골퍼다. 지금까지 공식 해외대회에서 23승을 하였고 그중 LPGA 투어 통산 15승과 메이저대회에서 6승을 하였다.

2008년 20세 나이로 제 63회 US여자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2013년 한해에 4개 여자 메이저대회에서 3개(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챔피언십, 여자US오픈)우승으로 LPGA 역사 63년 만에 새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번에 또다시 패티버그(미국 : 1937-39)와 소렌스탐(2003-05)에 이어 투어사상 세 번째(2013-15)로 단일메이저대회에서 3연패(連覇)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세운 기록은 세상에 아직까지 없다.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40)도 세우지 못한 기록이다.

박인비는 이번우승으로 메이저 대회 통산 6승으로 메이저 통산 5승을 거둔 박세리(38)와 대만 청야니(26)를 제치고 메이저 최다승 아시아 선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컷 탈락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18)를 누르고 세계랭킹 1위를 20주 만에 탈환했으며, 우승상금 52만 5천 달러(약 5억 8천만 원)을 보태 시즌 상금 142만 2천 5백 덜러(약 15억 9천만 원)로 시즌 상금도 랭킹1위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의 선수랭킹에도 1위를 확보했다.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박인비는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세운게 믿기지 않는다며, 완벽한 타이밍에 세계랭킹 1위까지 되찾아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남편을 만나 스윙을 바꾸고 볼 스트라이킹이 300% 쯤 향상된 것이 메이저 연승의 가장 큰 비결'이라며 경기종료직후 스윙 코치인 남편 남기협씨와 손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박인비는 현재 세계 정상급 선수가운데 메이저대회

우승비율이 가장 높은 메이저 퀸이다. 15승 가운데 메이저 우승이 6승으로 40%나 된다. 여제(女帝) 소렌스탐(스웨덴)도 72승 중 10승으로 14%, 카리웹(호주)도 41승 중 7승으로 17%이다. 타이거 우즈도 79승가운데 14승으로 18%, 잭 니클라우스도 73승 중 18승으로 25% 였다. 박인비의 강점은 쇼트게임과 퍼팅 능력이다. 그리고 '침묵의 암살자(silent assassin)'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압감이 큰 무대에서도 평정심이 강하다.

박인비의 앞으로 최대목표는 7월에 예정된 LPGA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에 우승이다.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브리티시 여자오픈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며 골프장도 벙커가 많고 페어웨이도 목장과 비슷하다. 작년에도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날 모 마틴(미)에게 패했다. 연초부터 비옷을 입고 연습을 하는 등 브리티시 오픈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이 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고대하며 이번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3연패를 다시 한번 축하한다.

중앙대 권중달 교수 대만 문화공로상 수상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74)가 6월 9일 11시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중국문화총회(中華文化總會) (회장 劉兆玄, 명예회장 總統 馬英九)로부터 문화공로상을 받는다.

권중달 교수의 이번 수상은 13년의 각고 끝에 2010년에 완간된 '자치통감' 294권 한글완역본을 출간한 문화적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다.

한글 번역 원고량만 200자 원고지 8만 매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인 '자치통감' 한글완역본은 2005년에 시작하여 5년만인 2010년에 비중국어문자로는 최초로 완역된 바 있다.

권중달 교수는 '자치통감' 연구 권위자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으며, 석, 박사 논문을 모두를 '자치통감'에 관한 것으로 썼으며, 중앙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정치대에 유학했다.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6년에 정년퇴직하여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다.

타이완의 중국문화총회는 1950년대에 장개석이 타이완으로 온 이후 중국문화의 발양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개석이 직접 조직하고 회장을 겸직하면서 중국문화의 발양에 기여해 왔다. 그 후로 이 단체의 회장은 총통이 겸임하거나 퇴임 총통 혹은 퇴임 행정원장이 회장을 맡아서 이 회를 이끌어 왔다.

중국문화총회에서는 권 교수가 한국에서 '자치통감'을 한국어로 완역하고 이의 고전적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보급한 공로는 동양문화를 세계에 발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였으며, 연전부터 이미 타이완 언론계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고

하였다.

권 교수는 '자치통감'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책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역사이고, 인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명이 진보하고 인간이 대처하는 모습의 변화 경향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가운데 특히 고구려본기는 거의 3분의 2 정도는 자치통감에서 인용하여 쓰인 것임을 발표한 일이 있는 만큼 자치통감을 모르고 우리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반쪽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교수는 이 자치통감의 한국어로의 완역을 통하여 문화콘텐츠의 보고를 한국에 제공한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의 : 권중달 교수 010-6323-8830